

낙후된 구도심 주민들이 직접 바꾼다

전주시 진북동·노송동 발전계획 수립 위한 마을조사 등 준비작업 착수

각종 도시개발에서 소외되면서 낙후된 구도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살기 좋은 마을로 바뀌어나가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인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진북동과 노송동에 거주해오면서 마을이 지닌 자원과 부족한 부분 등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기로 했다.

우선, 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진북동과 노송동 마을조사를 통해 마을의 장단점, 지역생산물, 스토리 등 17개 항목을 파악한다.

마을조사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습관과 만족도, 관심분야, 마을자원 등을 설문과 인터뷰, 기관 협력조사 등을 통해 진행되며, 분석과 대

이터화해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마을계획은 마을계획추진단 구성과 역량 강화교육, 마을조사 및 분석, 마을의제 발굴 및 연구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계획 수립 후에는 마을총회를 통해 동 대표성을 확보하고 실행연습 프로그램을 거쳐 사업을 본격화하게 된다.

진북동과 노송동 활성화 발전계획이 완료될 경우, 전주한옥마을에 집중돼 있는 관광효과를 구도심에 물론 전주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와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18일 노송동과 진북동 주민들과 함께 마을현황을 파악하

는 동네 한 바퀴를 진행했고 지난 25일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문방식으로 1차 마을조사를 실시했다.

오는 8월에는 구도심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을조사와 거리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후2동과 완산동은 지난해 마을계획을 수립한 이후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으로, 변화의 색이 올라오고 있다.

인후2동은 건지산 입구 주변을 정리한 뒤 꽃길을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재능기부로 성락프라자 상가에서 음악회를 진행해 인근 상가 매출 증대에도 보탬을 줬다.

전주시는 실현가능한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해 행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진행 중으로, 행정협의체는 향후 마을계획 수립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가공모사업 대응 등 민관 거버넌스를 이뤘다.

김기영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마을계획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가는 사업이다. 마을공동체활동을 중심으로 마을 발전을 위해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보는 뜻 깊은 일”이라며 “구도심 지역주민들이 주도하여 사람 중심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라스베가스 소비재 전시회’ 전주시관 운영

30일~8월 2일까지... 6개 업체 참가 시장개척 활동

전주시가 올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예산을 10배 늘리는 등 기업 기(氣) 살리기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소비재 시장에서 판로 확대에 나선다.

시는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박람회인 ‘라스베가스 소비재 전시회’에 전주시관을 설치, 운영한다.

50년 전통과 북미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 라스베가스 소비재 전시회에는 전주시 6개 업체가 참가해 기업과 제품을 홍보하고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현지 소비자들의 소비욕구를 파악하는 등 시장개척 활동을 펼칠 예

정이다. 시는 이번 전시회 참여로 최근 아시아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주지역 판로개척은 물론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중소기업 해외수출 지원을 위해 기업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우수 중소기업 인증제 시행,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규모는 작지만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을 독일형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강소향토기업 성장사다리사업과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 육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남북교류 기틀 마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출범식 가제자문 강화, 사업 제안·추진 역할

전주시가 남북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후 남북간 민간교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위촉직 12명과 당연직인 시 공무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김승수 전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는 민간 전문가, 의료분야를 포함한 학계와 시의원, 언론인, 청년, 문화계 등 각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전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근거로 이날 출범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남북관계 변화에 맞춰 각종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지역단체를 포함한 문화, 경제, 학술, 체육,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자매결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으며, 남북교류 관련 단체를 찾아다니며 실질적으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의 선택과 전주시민의 특색을



전주시는 27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위촉직 12명과 당연직인 시 공무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하고 있다.

반영한 사업들을 모색했다. 또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모범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청 북부지청을 방문해 그간 협력사업 추진내용과 절차, 기금조성, 사업지원 내용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출범에 따

라 향후 남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영숙 자치행정과장은 “현재의 남북교류사업은 민간교류 진전 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구체적이고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이

발굴되고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중단된 남북교류사업의 재개 수준이 아니라 교류의 폭과 수준을 점차 높이고 민관의 공동 참여 속에서 장기적으로 교류협력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인재용 기자

전주노인취업센터, 운영협 개최

덕진구, 폭염대비 응급처치 교육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협의회가 27일 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운영협의회에는 전담해 전주시 노인회장을 비롯해 양영환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김인기 생활복지과장, 서양철 금안노인복지관장 등이 참여했으며,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협의회 위원들은 중앙정부 일자리 관련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시장형 사업단 및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등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더불어 노인취업기관으로서의 전문성 확보를 주문했다.

한편 전주시와 전주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는 원활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정보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신규 노인일자리의 발굴과 민간 참여 기관 확대를 위한 지속적 홍보 등 공동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는 지난 26일 생태공원녹지와 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폭염대비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건국대학교 생활건강 응급처치팀 박정미 팀장의 주도로 현장민원이 많은 생태공원녹지와 직원들이 폭염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응급처치요령, 심폐소생술, 현장작업 중 팔절예방 등 온열예방대책에 대한 실습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김광태 주무관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인데, 실제 사례중심의 영상교육과 실습체험이 매우 도움이 됐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도 안전한 현장행정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덕진구, 7월 현장행정의 날 운영

사무실서 귀금속 훔친 50대 구속

지인의 사무실에서 귀금속을 훔친 50대가 붙잡혔다.

27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다이어 반지를 훔친 혐의로 A(56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께 정읍시 갑곡면에 위치한 지인의 사무실에서 반지 등 1,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 B씨와 대화 과정에서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다이어반지를 보고 순간 욕심이 나 훔쳤다”고 진술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 덕진구는 지난 26일 구동 직원 및 자원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현장행정의 날을 운영했다.

이번 7월 현장행정은 최근 공동주택 분양광고 현수막, 가계 홍보물, 버스 승강장 전단지 등 도시 곳곳에 남아 있는 불법 유통광고를 난립으로 도시미관 저해, 각종 사고 발생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불법광고물 제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송천1동 통우회 성정훈 회장은 “송천동 주변이 불법광고물로 가득 차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특히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이번 정비가 큰 도움이 되도록 현장행정에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